

#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첫 삽...세계적 관광지 도약 신호탄

2024년까지 골프장·호텔·콘도·케이볼카·워터파크 등 조성

2조2천억 생산유발·1만4000명 고용효과·경제 활성화 기대

여수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열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첫 삽을 떴다.

여수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에서 경도개발을 추진하고자 설립한 와이케이디벨롭먼트(주)가 최근 여수 경도에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다는 것.

이날 착공식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주철현 국회의원, 김희재 국회의원, 서완석 여수시의회의장이 축사를

했다. 착공식 특별 퍼포먼스로 테이프커팅식과 시삽식 등도 이어졌다.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는 대경도 일원 2.15㎢(65만평) 부지에 2024년까지 골프장·호텔·콘도·테마파크·마리나·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와이케이디벨롭먼트는 1단계 사업 기간인 2024년까지 호텔과 상업시설 등을 먼저 조성하기로 했다. 물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도 건설된다.

조성이 완료되면 외국인 관광객 82만여 명이 찾고 2조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 4000여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가 예상돼 지역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경도 투자만큼은 예정대로 추진해주시는 미래에셋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여수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경도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최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착공식에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주철현 국회의원, 김희재 국회의원, 서완석 여수시의회의장 등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과 여수시는 국비 포함 1,178억원을 들여 경도 진입도로 1.33km를 개설한다. 진입도

로는 내년 6월 개설공사에 들어가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 경도지구 개발사업의 관건인 연륙교 설치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2024년까지 공사를 마칠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웅 기자

## 코로나로 재발견한 '광양관광' 맞춤형 5가지 테마

여행의 새로운 키워드 '안전·언택트(비대면)·자연·로컬·웰니스'에 부합



광양 백운산 휴양림

코로나19로 여행의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산, 강, 바다와 야간경관을 두루 갖춘 청정 광양이 코로나시대 맞춤형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광양시는 해외여행에서 국내 여행으로, 도시에서 로컬로 여행의 판이 바뀌고 안전, 언택트(비대면), 자연, 로컬, 웰니스, 위생 등이 새로운 여행 키워드로 등장하는 트렌드에 맞춰 광양관광 자원을 5가지 테마로 구성한다는 것.

5가지 테마는 자연놀이터, 드라이브 스루, 모락모락 캠핑, 야경 스팟, 농촌체험휴양 등으로

접촉 가능성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지친 심신 위로와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웰니스 테마로 채워졌다.

'자연놀이터'는 백운산&둘레길&자연휴양림, 서천변, 섬진강, 배알도&수변공원 등으로 산, 강, 바다의 수려하고 청정한 경관을 감상하며 사색하고 등산, 걷기 등을 통해 건강도 챙길 수 있다.

'드라이브 스루'는 푸른 섬진강과 남해바다를 달릴 수 있는 섬진강 자연전경길과 푸른 광양만을 가로지르며,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의 장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순신대교가 있다.

'모락모락 캠핑'은 개별 또는 가족 단위로 각종 체험과 놀이로 특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서천변 캠핑장, 하조오토캠핑장, 백운산휴양림 야영장, 섬진강물들마을, 느랑이골자연휴양림 등으로 글램핑, 카라반 등의 다채로운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야간경관100선에 선정된 구룡산전망대 외에도 느랑이골 별빛축제, 해오름육교, 무지개다리, 해달별천문대, 서천변과 마동 음악분수쇼 등 찬란한 경관조명과 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야경스팟'에 포함됐다.

봉강 햇살촌마을·형제의별장마을·하조 산달뱅이마을, 육룡도산국사마을, 진상 백학동권역마을, 다압 메이리마을·고사마을 등에서는 각종 프로그램과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험휴양'을 즐길 수 있다.

이화염 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청정 광양의 숨은 매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재발견한 광양 관광 자원을 잘 활용해 코로나19 위기를 관광관광 발전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순천시-한국조폐공사,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업무협약

순천시는 최근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순천사랑상품권 통합시스템 구축과 양 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됐으며, 향후 카드형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도입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시스템(지류)을 7월 중 구축해 운용할 계획으로, 시스템이 운용되면 판매·환전 현행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

해져 부정유통 감시 등이 용이해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통합서비스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구입 및 사용이 가능한 카드형·모바일형 순천사랑상품권을 9월 중 도입할 계획이다.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순천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으며, 순천시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에 이어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게 된다면 순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협약이 순천사랑상품권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순천경찰서 선평삼거리 교통센터 신축이전 개소

"시민에게 더욱 공감받는 교통안전 치안활동 기대"

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최근 경찰서장, 허석 순천시장, 정호성 순천의료원장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평삼거리로 새롭게 신축 이전한 교통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선평삼거리 교통센터는 1998년부터 순천의료원 앞에서 운영되어 왔던 교통센터가 이전된 것으로, 그간 노후된 환경과 협소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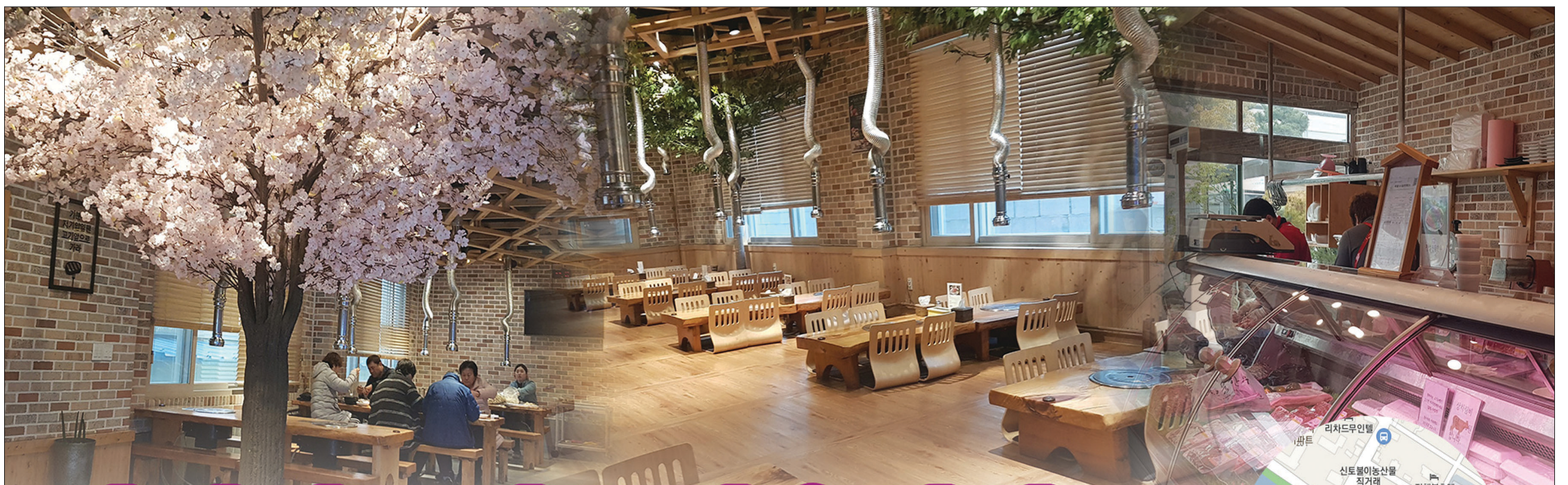
도시지역 교통혼잡, 도시 미관 저해 등으로 장소 이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순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금년 1월말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착공하여 약 18평 규모로 신축, 이전하게 됐다.

노재호 서장은 "선평삼거리는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요충지인 만큼 이곳 교통센터는 앞으로 순천시민의 교통사고예방

치안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순천경찰은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통하여 순천시민의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예방 등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

